

	보도자료	2025. 7. 10.(금)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	☎ 760-7801
		업무담당자	이명은	☎ 760-7823
		홍보담당자	양지순	☎ 760-7514

신품종 만감류 ‘맛나봉’ 노지재배 실증 시범 나선다

-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만감류 신품종 ‘맛나봉’ 노지재배 실증 시범사업 추진 -
- 품종 다양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원 육성 만감류 현장 검증 -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노지감귤 품종 다양화를 위해 연내 수확이 가능한 신품종 만감류 ‘맛나봉’의 노지재배 실증 시범사업에 나선다.
 - ‘맛나봉’은 농업기술원이 황금향과 레드향을 교배해 육성한 만감류로 2023년에 품종 출원을 완료했다.
 - 과실의 꼭지 자리(과경부)에 봉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며, 노지재배에서도 평균 당도 13° Bx 이상, 산 함량 약 1%로 우수한 품질을 나타낸다.
 - 이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만감류 품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12월 중순부터 수확이 가능해 연내 출하도 가능하다.
-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올해 1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900만 원을 투입해 방풍망과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하고, ‘맛나봉’ 접수를 지원하는 등 노지재배 실증 기반을 조성했다.
 - 2029년까지 맛나봉의 안정적인 노지 생산을 위한 병해충 관리 등 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과실 품질과 생산성, 상품률 등을 조사해 노지재배 적응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온주밀감에 편중된 노지재배 감귤 품종을 다양화하고, 소비시장 확대와 가격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명은 농촌지도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온주밀감에 편중된 노지감귤 재배체계의 품종 다양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 실증을 통해 농업기술원이 자체 육성한 만감류新品种 ‘맛나봉’의 노지재배 적응성과 안정생산 기술을 검증해 농가 경쟁력 향상과 소비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